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긍정 제목: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 성경: 누가복음
10장21-24절

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23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도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 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눅10:21-24)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더 나은 삶이 멀지 않고 바로 자기 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또 사소한 개인적인 차이가 현실적으로는 큰 결과들을 가져온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이기 쉽다.(아빠 차이가 집 차이... 아들 차이가 자존감 차이)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긍정적이기 힘들다.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아는 자와 알지 못한자, 지위가 있는 자와 지위가 없는 자의 차이가 크다. 사회가 민주화 될수록 대부분의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아는 것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더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더 누리려고 한다.(대학 문제도 그렇다. 지방대학은 등록금 내리면 곤란. 대도시 대학들은 더 쌀수도 없는 노릇. 그러다 보니 서울 대학 재단 배만 불림. 문제는 모두가 대학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이 덜 행복해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민주화 된 사회는 오히려 차별감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그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

며칠전에 북한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 그 다음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북한이라고 발표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이니 일맥상통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이 사람들은 도데체 자기가 왜 불행한지,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도 모른다.)

왜냐면 방글라데시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고 도데체 오르지 못할 나무 조차도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선진국이란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 준다.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이 느끼는 불행감을 느끼지 못할지 모른다. 그 나라에서는 반찬에 개구리가 들어간 것들은 오히려 깔깔거리며 웃을 일일지 모른다. 그 나라에서는 부모가 없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 나라에서는 집이 없고 땅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써 불행해 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행복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맛보시는 기쁨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앞 다뒀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숨겨져 있는 행복이라는

뜻이다.

또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적은 어린이가 아니라) 단순한 삶을 누릴 줄 알고 또 거기에서 만족을 찾아내는 자들을 상징한다.

사람이 얻는 만족에는 단순성과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무리 큰 쾌감이라도 계속해서 맛보려는 것은 오히려 쾌감을 무디게 한다.

우리가 너무 지혜롭게, 너무 많은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게 됨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이 만족감이 감추어져 버린다.

2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 전도 보고를 할 때였다. 그 때 사람들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앓은병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와 기쁨으로 전도의 보고를 하였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은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이 아니라, 단순히 어린이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가 이런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셨다.

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다.

그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나의 생각과 삶을 단순하게 한다. 즉 무엇이 더 가치있고, 더 선한지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사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는 이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는 상대적으로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더 가치있고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행복해 하는 것이 되든지, 아니면 영똥한 것을 쫓아가다가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되든지 한다.

진짜 지혜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를 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된 만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참으로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김정일이 이 원리를 악용하고 있다.)

즉 긍정적 삶의 스타일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다. 하나님께 대한 좋은 감정, 좋은 태도,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건강한 이해가 핵심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23 제자들을 돌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도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 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 하였느니라 (눅10:21-24)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 하셨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은 맛보지 못한 것들을 맛보고 있다. 너희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기쁨, 수많은 선지자들이 갈망

했던 바로 그것을 맛보고 있다.

참으로 이것이 기적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체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을 받으면 된다. 초청하자. 갈망하자. 그러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방글라데시나 뉴욕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만족하게 되는데, 분명하게 긍정적인 삶의 스타일로 바뀌게 된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고난 중에 기도하며 찬송하자
말씀:야고보서5장13-20

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약5:13-20)

찬양예배

긍정적 삶의 스타일로서는 버겁다는 것을 느낄 때 사용하는 방법들.

-꿈결같은 세월을 사는 것이 그리 길지는 않지 않느냐?

-삶이란게 몰라서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도 넘어지고, 욕심 때문에도 넘어진다. 이제와서 무엇을 탓하라?

-배가 휘청거릴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배가 엎어졌으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쳐야 한다. 이럴때는 평상시에 사용하던 긍정적 삶의 스타일이 통하지는 않는다.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

-생존의 법칙이 더 우선적이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어떻든지 험난하지 않았겠는가?

-그땐 그랬다. (도망도 갔고, 모른척 하기도 했고, 연락을 끊기도 했고, 속이기도 했고, 남의 등지에 알을 낳기도 했고, 얽혀 가기도 했다. 손가락 하나 더 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리하고 베풀고, 알아주고, 모른척 해 주고, 섬겨 주고, 참아주고, 속아 넘어가 주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대신 감당해 주어야 할 때.

-긍정적 삶의 스타일로는 버겁다고 느낄 때, 긍정적 태도를 버리지는 말되 더 겸손하고, 더 담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힘을 내고, 더 신중하고, 더 열심을 내자.

-이제는 우리가 그렇다고 배신하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원망하거나, 거짓말 하거나, 안면 몰수 하거나, 화를 내거나, 자포 자기 하거나, 반역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세월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죄라면 너무 많이 먹었다.

-내 힘으로는 어렵다고 빨리 깨닫고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하자.

-경건으로 정비하자(예배, 질서,)-슬플때는 더 겸손하라.

-코칭(인생 재정비) 단순히 순종했기 때문에 풀어짐

-연합, 전도

-하나님께 헌신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자.

-아멘.